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 275-289
<https://doi.org/10.29212/mh.2022..122.2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으로 본 러일전쟁

- 그물(김문자 지음·김흥수 옮김),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 -

김흥수*

본고는 『러일전쟁과 대한제국-러일 개전의 정설을 뒤엎다』(김문자 지음·김흥수 옮김, 그물, 2022)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러일전쟁이 진해만과 마산 전신국의 점령에서 시작되었으며, 러일전쟁을 종결한 ‘쓰시마 해전’이 무선과 유선을 조합하여 대한해협을 전략적 봉쇄망을 구축한 일본 해군의 하이테크 작전에 의한 승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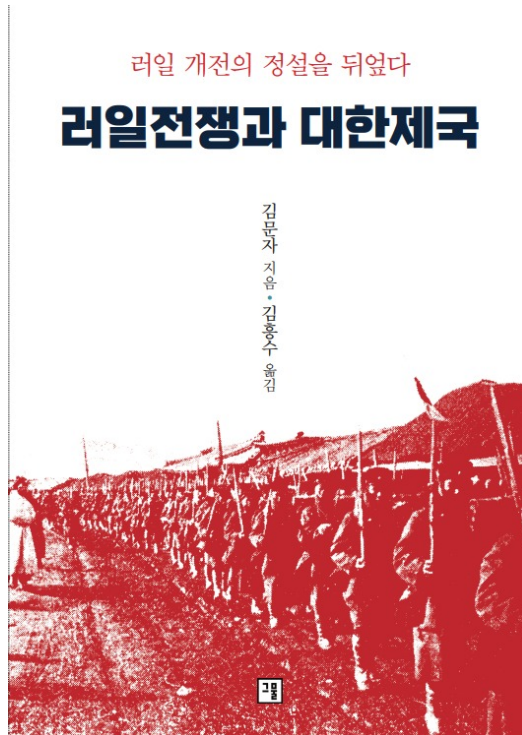
1. 전신선과 왕비 살해

이 책은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의 『日露戰爭と大韓帝國』(高文研, 2014)을 번역한 것이다. 근래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한 『극비 메이지37·8년 해전사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나 『러일전쟁 참가자 사담회 기록(日露戰役參加者史談會記錄)』, 러일전쟁 당시 군함의 전시일지, 그리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된 당시 군령부 참모였던 다카라베 타케시(財部彪)의 일기 등을 종합으로 구사하여 기존의 정설을 재검토한 역작이다. 서장과 종장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표지



- 서장: 러일 개전 전사, 전신 지배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침략
- 제1장 대한제국의 중립선언과 한일의정서: 중립선언을 유린한 일본의 외교와 군사
- 제2장 일본이 도발한 러일 개전: 러시아의 회답서를 억류하다
- 제3장 바뀌치기한 러일 개전의 첫 포화: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의 전보 개찬과 그 행방
- 제4장 튀순함대 ‘행방불명’ 전보의 정체: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베에의 개전 유도 책략
- 제5장 육해군의 대립과 합의: 서울 점령 육군부대의 극비 수송 작전
- 제6장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 한국 연안에서 국제법규를 중시할 필요가 없다(야마모토 곤베에)
- 제7장 감춰진 한국침략전쟁: 러일전쟁은 진해만의 점령에서 시작되었다
- 제8장 ‘쓰시마 해전’과 독도: 대한해협의 전략봉쇄와 X점
- 종장 만국평화회의로의 길: 대한제국의 황제와 외교관들

대부분의 러일전쟁 서적이 외면한 대한제국의 움직임을 제 1장과 종장에서 서술하여 책 제목을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이라 하였다. 제1장에서는 전쟁 전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이 즈푸(芝罘, 옌타이)의 전신국을 통해 세계에 발신한 ‘전신 중립선언’을 세밀히 고찰하였다. 고종이 비밀리에 파견한 이건춘(李建春)의 요청으로 중립선언을 발표한 발신자가 대한제국 명예 영사이기도 한 즈푸 주재 프랑스 부영사 게랭(Guerin)임을 새롭게 밝혔다. 아울러 그 선언을 즈푸에서 발신한 것은 이미 한국의 전신선에 일본의 지배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장에서

는 전쟁 후 고종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 등 국권 회복 투쟁을 서술하였는데, 주프랑스 공사 민영찬의 활동을 새롭게 발굴하여 재평가한 점이 돋보인다. 필자는 이 책의 역자로서 일종의 책임감으로 이 책을 소개하려 한다. 지면 관계로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워 저자가 주목한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 위주로 언급하려 한다.

저자는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나카츠키 아키라(中塚明)의 제자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서로의 원고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학문적 동지의 관계로 발전했다. 나카츠키는 일본의 조선 침략사 연구의 선구자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로부터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²⁾ 첫째,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문제 연구가 불가결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 문제를 빼고는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나라를 통치하는 전권을 천황이 쥐고 있는 전제 지배 아래서는 역사의 진실은 은폐되었다는 것이다. 편찬된 역사서나 사료집, 정치가나 군인의 전기 등에는 각종 개찬(改竄), 개서(改書), 그리고 삭제(은폐)가 가해졌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1차 사료를 찾아서 연구하라는 가르침이었다 한다. 야마베의 학문적 은혜를 입은 나카츠키는 일본 참모본부가 편찬한 청일전쟁사 초안을 발굴하여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실상을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는다: 전사에서 사라진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에서 청일전쟁이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³⁾ 나카

2) 中塚明, 『日本の朝鮮侵略史研究の先駆者: 歴史家山辺健太郎と現代』(高文研, 2015, 17-18쪽).

3)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戦史から消された日本軍の「朝鮮王宮占領」』(高文研, 1997). 이 책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박맹수 번역, 푸른역사, 2002)로 국

츠카는 이 책에서 새롭게 발굴한 「일로전사편찬강령(日露戰史編纂綱領)」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사에서 기술해서는 안 되는 15개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국제법 위반 또는 외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사는 기술해서는 안 된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공간(公刊)된 전사의 진실 은폐와 심지어 사실의 날조를 폭로하고 있다.

일찍이 저자는 『朝鮮王妃殺害と日本人』(高文研, 2009)⁴⁾이라는 획기적 저작에서 역사상 고금 미증유의 흉악 사건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을 전신선과 관련하여 논증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와 대본영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삼국간섭이 일어난 후에도 청일전쟁 기간에 가설한 조선의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군의 주둔을 요청했으나, 러시아에 의지하려 한 왕비가 이를 반대하여 참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와 대본영의 뜻에 따라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전권 공사가 경성수비대라는 일본 군대를 동원해 왕비를 제거한 것인데, 이 음모를 감추기 위해 일본인 사관이 훈련한 훈련대가 대원군을 옹립한 쿠데타로 위장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은 아관파천 이후 러일 양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의 균점을 위해 체결한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1896년 6월)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이북 전신선의 점유를 포기하고 이 지역의 러시아 전신 가설권을 인정하였지만, 부산-서울 간 일본이 가설한 전신선을 계속 점유할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승인받았다. 동시에 일본이 전신선 수비를 위해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병을 파견하는 것,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

내에 소개되었다.

4) 한국어 번역본은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태학사, 2011).

로 서울에 2중대, 부산과 원산에 각각 1중대를 두는 것도 러시아가 인정하고, 러시아도 동시에 병력을 두는 권리를 일본이 인정했다.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설정한 일본 정부와 군부는 해외에 군대를 보내 근대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전달 수단인 전신선의 확보를 이처럼 중요시했다.

이 책은 전작(前作)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제2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에 주목하여 러일전쟁 1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사세보(佐世保)에서 한국 남해안까지 극비리에 해전 전선을 부설한 것, 일본의 최초 무력 행사는 연합함대의 사세보 출항에 앞서, 제3함대에 의해 실행된 진해만과 마산 전신국의 점령이었다는 것, ‘쓰시마 해전’은 무선과 유선을 조합하여 대한해협을 전략적 봉쇄망을 구축한 일본 해군의 하이테크 작전의 승리였다는 것 등을 새롭게 규명하여 러일전쟁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일본이 도발한 러일 개전

종래 일본인에게 러일전쟁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긴 ‘영광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러일 개전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으킨 ‘조국 방위전쟁’ 내지 ‘자위전쟁’으로 인식되었다.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은 ‘전후 70년 담화’에서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논증했듯이 러일전쟁의 진실은 이것과는 정반대다. 러일전쟁은 전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쟁을 회피하려 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었다.

1904년 1월 12일 러시아의 양보가 통지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쓰라 타로(桂太郎)·야마모토 곤베에·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등 일본의 수뇌부는 개전에 합의했다. 개전 1개월 전부터 일본 해군은 대한제국의 영토인 진해만을 연합함대의 근거지로 설정하고 극비리에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그리고 개전 준비가 정돈되기까지 시간 벌기를 위해 러시아에 한국에서의 중립지대 설정과 한국의 군사·전략적 사용 금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최종 수정의견’을 보낸다. 이때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일본 수뇌부의 공통 인식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와 육·해군은 러일 교섭 단절을 전제로 개전 준비를 진행했다. 그런데 1월 29일 오후 6시 외무성에 도달한 주러공사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郎)의 전보에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회답서를 2월 2일에 튀순의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예상 밖의 사태에 일본의 최고 수뇌부(이토, 야마가타, 가쓰라, 야마모토, 고무라)는 1월 30일에 러시아의 양보가 통지되기 전에 개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저자는 이 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도양단’의 결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한다.

이토는 러일 교섭에서 러일의 대립점인 한국에서의 중립지대 설정과 한국의 군사 전략적 사용의 금지라는 두 가지를 러시아가 철회하여 일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도 일본은 수년간 안심을 얻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러시아와 전쟁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토는 지금 “소강을 얻어 만족하느냐”, 혹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의 정략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나가느냐”, ‘일도양단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토의 의지가 후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의 정략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가는” 것, 즉 대러 개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 개전을 피하려 한 ‘대러 협조론자’, 나아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얘기되어왔다. 이토가 진정한 ‘평화주의자’였다면 이때 전쟁을 저지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토는, 가령 러시아가 일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도 지금, 아직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전쟁해야 한다고 솔선해서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2월 3일 일본의 지도자들은 내각·원로회의를 열고 대러 개전을 결정했다. 그 후 가쓰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이 궁중에 참내(參內)하여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천황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날 4일에 어전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청했다. 이 어전회의에서 신속히 개전한다는 재가를 얻을 필요가 있어 해군대신 야마모토는 전보를 바꿔치기하고 심지어 전보의 내용을 개찬하면서까지 개전으로 몰고 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전말은 이리하다. 고무라 외무대신은 2월 3일 오후 6시 15분에 즈푸 주재 미즈노 코키치(水野幸吉) 영사가 같은 날 오후 4시 26분에 발신한 전보를 수취한다. 거기에 “뤼순함대가 출항했지만 행선지는 불명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야마모토는 다음날 2월 4일의 어전회의에서 미즈노 영사의 전보를 모리 요시타로(森義太郎) 중좌로부터의 증대한 정보로 바꿔치기해서 보고하고, 행방불명된 러시아함대가 쓰시마나 혹은 사세보를 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러시아함대가 출현하면 격파하라고 명령할 허가를 천황에게 구했다. 천황은 이를 허가했다. 이것이 군사행동 개

시의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뤼순의 대안인 즈푸에서 첩보활동에 종사한 해군 군령부 참모 모리 중좌가 뤼순함대 ‘행방불명’이라고 절대로 보고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리는 뤼순함대가 대거 출항한 이유, 즉 산둥반도 동쪽 해상에서 뤼순함대가 연습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러일 개전의 시점을 1904년 2월 8일 일본 연합함대의 인천항 및 뤼순항 기습작전으로 보지만, 최초의 전투행위는 연합함대와 별도로 편성된 제3함대가 자행한 2월 6일의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의 점거, 그리고 부산 근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한 것이었다. 청일전쟁과 마찬가지로 러일전쟁이 ‘조선전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日露戰爭: 起源と開戦 (上), (下)』(2009, 2010, 岩波書店; 이웅현,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2』로 2019년 한길사에서 번역)에서 처음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책에서 더욱 상세하고 충실하게 논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1904년 2월 6일 연합함대의 사세보 출항에 앞서 결행된 제3함대의 한국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 점거(오후 4시 30분), 한국 영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나포한 사실이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최초의 무력 행사이다. 이 제3함대의 작전 전체를 지휘한 해군대신 야마모토는 연합함대의 발진을 숨기고, 뤼순 및 인천항 기습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또 진해만을 점령한 함대와 통신선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대한제국의 전신국을 점거하고 부산 근해에서 러시아 상선을 기선을 나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일전쟁 서전을 주도한 야마모토 해군대신은 “한국 연안에서는 다른 열강과 관계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국제공법상의 예규를 중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훈령했다. 러일전쟁이 국제법을 위

반하여 한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것을 야마모토 해군대신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국외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인 진해만 점령과 마산 전신국 점거는 일본 해군의 공식 전사인 군령부 편찬의 『메이지 37·38년 해전사(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전4권, 1909년)에서는 완전히 은폐되었다.

또한 이 공간 전사에서는 2월 8일의 인천 해전에 대해 러시아의 소형 포함 코리예츠는 “우리 정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끝내 포화를 일으켰다. 때는 바로 오후 4시 40분으로 이것을 메이지 37·38년 러일전쟁 개시의 첫 포화라 한다”라고 하여 러시아 측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같은 사건을 『극비 메이지 37·38년 해전사』에서는 “8일 오후 5시 운송 선대를 이끌고 인천에 입항할 때 팔미도 부근에서 ‘코리예츠’가 출항해서 오는 것을 만났다. 운송선을 공격하려는 태도라고 인정하여 수뢰정에서 두 발의 수뢰를 발사했어도 명중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일본 수뢰정이 먼저 공격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함에도 공간 전사에서는 러시아 측이 먼저 발포한 것으로 개찬하여 인천 및 튀순항 기습공격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봉쇄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전의 정당화를 꾀하려 하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3.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과 독도

여타의 러일전쟁 관련 서적과 비교해서 이 책의 두드러진 점은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한 통신 전략을 부각한 데 있다.

개전 시기의 통신 전략이야말로 대러시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해군 군령부는 1904년 1월 초에 전 7항목으로 된 ‘대러 작전 제1계획’을 수립하여 목포항 바깥에 있는 팔구포를 일본 함대의 집결지로, 진해만을 일본 함대의 근거지로 삼았다. 개전 전에 일본 해군의 본거지인 사세보에서 이 지역 간의 통신선을 확보하기 위해 해저전선을 부설했다. 이렇게 일본 측의 통신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로 통하는 통신선을 절단했다. 그리고 러시아 이외의 외국공관과 일본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전보를 제하고,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전보의 발송을 2월 5일 정오부터 72시간 정지시켰다. 일본 해군의 발동을 감추고 뤼순·인천 기습과 육군부대의 한국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저자는 ‘개전 기습’을 성공시키기 위해 개전 전에 일본의 통신선을 부설하고, 러시아 통신선을 절단한 것은, 모두 위법이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독도의 불법적 일본 영토편입을 일본 해군의 통신 전략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 해군은 울릉도와 독도가 러일 두 함대의 결전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울릉도에 망루 설치와 해저전선 부설을 서두르고 리양코섬(독도)을 다케시마로 개칭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일본 해군은 서해에서 기선을 제압했으나, 동해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함대는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 육군부대를 싣고 랴오둥반도로 향하는 수송선을 격침하고 일본에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외국 기선을 습격하여 나포하였다. 심지어 남하하여 3일 동안

이나 쓰시마해협의 오키노시마(沖ノ島) 근해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제2함대가 그 포착에 실패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해군은 동해안의 죽변과 울릉도에 망루를 가설하고, 그 사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하였다.

일본의 군함은 러일전쟁 전부터 당시의 최신식 무선 통신기를 탑재했으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선통신은 방수(傍受)될 우려가 있고 방해전파에 의해 통신 불능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각지에 망루를 설치하고 망루 간을 유선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망루에 무선전신기를 설치했다. 망루는 눈과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얻은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함선에 탑재된 무전기에 의한 통신을 중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죽변만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전신선을 수색하여 끌어올리고 울릉도와 사세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했다. 나가사키에 지사를 둔 덴마크 대북전신회사가 부설한 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 간의 해저전선(2회선)을 인양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외에 일본 해군은 남해안 및 동해안에 약 20개의 망루를 건설하고 일본의 규슈, 산인(山陰, 혼슈 서부) 연안 및 도서에 설치된 망루와 연계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한해협을 순항하는 초계함의 무선통신이 망루를 거쳐 바로 제2함대 사령부(쓰시마의 다케시키)와 연합함대 사령부(진해만의 송진)에 전해지고, 또 사령부에서 발신하는 명령이 바로 전 함정에 전해지는 체제의 통신망을 갖춘 것이다. 대한해협을 초계하는 함정이 얼마나 빨리 러시아함대를 발견하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또 정확히 사령부에 전달하는가. 또한 사령부의 명령을 어떻게 전 함정에 통지하는가. 이것이 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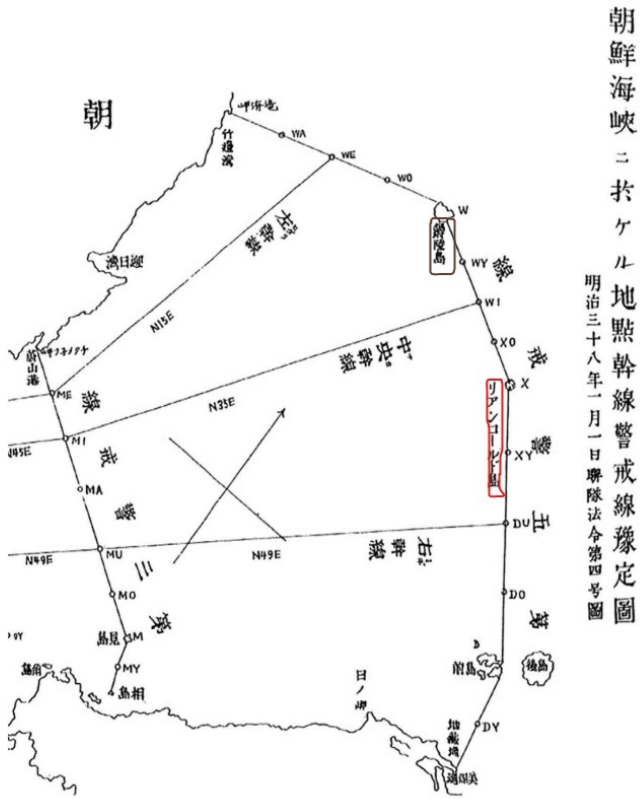
승패를 좌우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신망은 블라디보스토크함대와 뤼순함대의 합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또 언젠가는 출현할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를 맞아치기 위해서도 구축해야만 하는 인프라였다.

이러한 해군의 전략 속에서, 중요한 통신 및 감시거점으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울릉도와 독도였다. 울릉도와 죽변만의 망루 사이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하고, 게다가 대북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세보에 연결하는 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습격을 경계하는 속에서 시행되었다. 죽변만에서 울릉도로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오키나와마루(沖繩丸)의 호위함으로 울릉도로 향한 ‘니타카(新高)’가 남긴 일지에는 울릉도에서 수집한 리양코섬의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904년 6월 17일에 러시아 군함 3척이 리양코섬(독도) 부근에 나타나 일시 표박한 후 북서쪽으로 갔다는 정보는 제2함대사령부 및大本영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독도가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집결지점인 것을 일본 해군이 처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1904년 말부터 1905년 초까지 야마모토 곤베에 해군대신, 이토 스케유키(伊東祐亨) 군령부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연합함대사령장관, 가미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 제2함대사령장관은 도쿄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협의하여, 1905년 1월 1일자로 「대한해협에서의 지점·간선·경계선 예정도」(그림 2 참조)를 제정하고 1월 10일부터 실시했다. 그림의 X점이 리양코루도섬(독도)으로 러시아함대 포착 망의 중심 지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한해협을 통과할 러시아함대를 재빨리 포착해서 결전을 건다. 뿔뿔이 흩어진 러시아함대는 아마 독도를 목표로 북상할 것이다. 연합함대는 그 전에 울릉도에

집결하여 독도 해역에서 최후의 결전을 건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결과적으로 거의 그대로 되었다.

〈그림 2〉 대한해협에서의 지점·간선·경계선 예정도



이처럼 독도는 일본 해군의 군사 전략상 필요에서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지도 중앙에 X점이라는 부호를 붙인 '리양코루드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그 후 보름 정도 지난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였다.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9월 29일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과 10년간 대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의에서 대여 문제는 제외되었다. 이런 점들을 들어 저자는 해군의 통신 전략상 필요에서 그 요충지인 독도를 비밀리에 탈취하였다고 논증하였다.

